

조선대병원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탈바꿈한다

보건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사업 선정...중증질환 위주 진료체계 구축 병상 33개 감축·희귀질환 등 인상된 수가 적용...병원측 "차질없이 준비"

조선대병원이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탈바꿈한다. 7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조선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병원 13곳이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차 대상 병원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의 치료에 집중함으로써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를 전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 개혁 1차 과제이기도 하다.

3차 선정평가 결과 조선대병원을 비롯해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건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곳이 추가 선정됐다.

조선대병원은 지역 최초로 상급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조선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해 현

재 713개 병상 가운데 33개 병상을 감축한다. 조선대병원측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선정이 된 만큼, 정부시책에 맞춰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 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활발한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갈 수도 있다. 정부는 성과를 평가해 추가 인센티브 보상을 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 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7일 조선대를 비롯한 전국 13개 병원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조선대병원 전경. /나명주 기자 mjna@

정부는 내년에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당시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축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내실 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전문의를 지정하고, '다기관 협력 수련모형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들이 여러 종류의 의료기관에서 중증부터 경증까지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

원할 방침이다. 수련수당 지원 대상은 기존 소아청소년과에서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수능 응시자 3만787명...지난해보다 1235명 늘어

광주 1만6846명·전남 1만3941명

광주·전남지역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자가 전년도보다 1235명 늘어났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치르는 수능의 광주지역 시험장은 모두 38개교 612개 시험실이다.

수능 당일 환자 대비용 별도 시험실 1실과 미응시자 대기실 1실을 마련해 총 688개 시험실을 운

영한다.

광주 수능 응시자는 1만6846명으로, 재학생 1만1684명·졸업생 4420명·검정고시 등 742명 등이다.

전년 대비 757명(재학생 572명·졸업생 88명·검정고시 등 97명)이 늘었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전체 시험장과 시험실 현장 점검을 3차례 이상 실시하고 방송시설 등 제반 시설을 보완했다.

또 오는 11-13일 장학관 이상의 시험장 점검관

을 파견해 수능의 안정적 시행과 수험생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종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전남도교육청도 수능을 위해 7개 시험지구, 45개 시험장을 운영한다.

목포 11곳, 여수 5곳, 순천 11곳, 나주 6곳, 광양 5곳, 담양 3곳, 해남 4곳 등이다.

지원자는 1만3941명으로 전년 대비 478명(재학생 458명·졸업생 4명·검정고시 등 16명)이 증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집단소송 1심서 일부 승소

미쓰비시광업 상대 5년7개월 만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에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 제기 5년 7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4명에 대해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유족 5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광업에 강제로 끌려가 광산에서 노역에 시달렸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모두 피해자의 유족이 원고로 참여했다.

원고 5명의 청구기각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측은 강제 징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부족 또는 징용 탄압이 피고 기업이 아닌 점, 상속

인 관련 부분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민모임측은 미쓰비시광업 피해자들을 모아 2019년(19명 원고)과 2020년(9명 원고) 각각 2차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9명을 원고로 한 2차 집단 소송에서는 지난 8월 광주지법에서 6명이 승소 판결을 받아 사망 피해자별로 1억원씩 위자료(일부는 상속분만 인정)를 인정받았다.

한편 시민모임은 2019년 54명을 원고로 내세워 미쓰비시광업 등 일본 전범 기업 9개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1차)을 시작한 이래로 총 87명의 피해자에 대한 15건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9-2020년 제기한 15건 중 한 건(스미세카홀딩스)은 패소가 확정됐다. 일본 정부가 소장 송달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수년째 소송이 공전돼 나머지 14개 사건(광주고법 7건·광주지법 7건)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었다 이날 선고로 광주지법에는 6건이 남게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

무등산 인왕봉에 표지석 섰다

정상 3봉 중 유일하게 탐방 가능

무등산 정상 3봉(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중 유일하게 탐방이 가능한 인왕봉에 표지석이 설치됐다.

7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인왕봉(1164m)에 표지석(사진)을 설치했다.

이번 표지석 설치에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가 설치된 이후 57년만인 지난해 9월 23일 상시 정상개방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상부 상시개방에 따라 인왕봉을 오른 탐방객들의 표지석 설치에 대한 요청이 꾸준했다는

것이 사무소의 설명이다.

그동안 무등산 탐방로 중 중머리재(617m), 중봉(915m), 서석대(1100m), 입석대(1017m) 등 봉우리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표지석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무등산 정상 3봉에는 군부대가 주둔해 있는 탓에 표지석이 없었다.

정상 표지석은 해당 국립공원의 명칭, 봉우리 명과 해발고도를 표기함으로써 탐방객들에게 지리적 위치 표시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관계자는 "3대 정상봉 중 유일하게 등반이 가능한 봉우리라는 의미를 담아



표지석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등 법원 홈페이지 접속 일시 중단...디도스 공격 추정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포함한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7일 오후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날 광주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외부에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시도된 것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했다.

디도스 공격은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에 대량

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일종의 사이버 공격 방식이다.

다만 광주법원 내부망과 서버 등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이날 재판 진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광주지법은 밝혔다. 또 전자소송이나 인터넷 등기소 등에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식성,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대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요별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리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